



전주매일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전북특별자치도 특별법 행안위 법안소위 통과

심사과정서 강원특별자치도 입법례 감안 여야 의원들, 유사 특별법안 제정에 뜻 모아 전북 청사진 구체화 등 필요성 논리 보완도

전북도가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전북특별자치도법안이 2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제1법안심사 소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소위원회는 이날 안호영 의원, 정운천 의원, 한병도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전북특별자치도 특별법안을 상정하고 공청회를 거쳐 3개의 특별법안을 병합심사했으며, 심사결과를 반영한 대안을 마련하기로 의결했다. 심사에 앞서 실시된 공청회는 법안에 대한 의원들의 이해를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전북연구원 이성재 연구

위원 등이 진술인으로 나서 국회행안위 1소위 위원들의 질의에 대해 특별자치도법 필요성과 추진방향, 법안 검토내용 등을 답변했다. 공청회에 이어 실시된 법안 심사과정에서는 강원특별자치도의 입법례를 감안해 이와 유사하게 특별법안을 제정하기로 하는 데 여야 의원이 뜻을 합쳐나간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국회 소위 심사 통과를 전북 정지권 원팀의 성과로 평가할 수 있다. 정운천·한병도 양당 전북도당위원장인 각기 법안을 발의하고 여야의

이견이 없도록 설득했고, 김관영 도지사는 수시로 국회를 찾아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들을 직접 만나 설득하는 등 적극적인 활동을 전개했다. 또 이 과정에서 전북의 청사진을 구체화하는 등 법안의 통과 필요성에 대한 논리 보완도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법안 의결 직후 김관영 도지사과 정운천·한병도 양당 전북도당위원장은 "전북특별자치도가 가야 할 길이 분명한 만큼, 도민의 열망을 국회에 충분히 전달해 특별법이 시급히 통과될 수 있도록 여야와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제1법안소위를 통과한 법률안은 행정안전위원회 전체 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 지구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김경수 기자



28일 서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실에서 열린 전북특별자치도법 국회소위 심의에 김관영 도지사와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 정운천 국민의힘 전북도당위원장이 심의 관련 국회의원들에게 전라북도 특별자치도법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있다.

전북지역에 떨어진 빗방울, 오늘 오전까지

30일부터 강추위 예고... "건강관리에 유의해야"

28일 전북지역에 내린 비는 29일 오전까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전주기상지청에 따르면, 29일 오전까지 전북지역에 비가 내리고 오후부터 흐리고 구름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비가 그친 30일부터 영하권의 강추

위가 찾아올것으로 보인다고 기상청 관계자는 전했다. 29일 아침 최저기온 10~13도이며, 낮 최고기온은 11~13도로 일교차가

크지 않으며, 비가 그친 30일은 영하의 날씨로 기온이 크게 떨어져 아침기온은 -7~-1도, 낮 기온은 -2도~1도로 예상된다. 서해안은 새벽부터 가끔 눈이 내릴 것으로 보인다. 전주기상지청 관계자는 "30일부터 추위가 예상되는 만큼 건강관리에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최이영 기자

코로나19 백신 접종, 나와 내 가족을 위한 일입니다

국어, 약간 쉽게 출제·수학, 전년과 비슷

도교육청, 2023학년도 수능 가채점 결과 분석

예측 편차 발생할 수 있어 보수적인 접근 필요 해당 대학 최저기준 미충족시 정시 전략 탐색을 올해 재학생·졸업생 점수 격차 더 벌어질 듯

전북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28일 브리핑룸에서 2023 수능 가채점 결과 분석 및 정시모집 전망에 대해 발표했다. 이날 도교육청 발표에 따르면 국어와 수학은 가채점을 통한 예측의 편차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보수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했다. 특히 가채점을 통해 해당 대학의 수능 최저학력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것으로 판단될 때에는 즉시 정시모집 전략을 적극적으로 탐색할 것을 조언했다. 그러면서 대학의 각 영역별 반영 비율에 따라 수험생의 점수 조합을 고려해 유리한 영역의 반영 비율이 높은 대학을 지원하라고 덧붙였다. 더불어, 수능 점수 지표, 영역별 반영 비율, 영어 등급 간 점수 차 등을 고려한 정시 지원전략 수립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많은 학생들이 점수 차가 크면 불리한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대학에 따라

1점이 큰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다며, 단순한 점수 차를 따지지 말고 자신이 지원한 대학과 학과에서 내 위치가 어느 정도인지를 파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도교육청 학교교육과 담당 장학관은 전북지역의 10여개 고등학교 진학부장과의 의견을 들어 가채점 결과를 확인한 결과, 올해는 재학생과 졸업생의 점수 격차가 더 벌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작년과 비교했을 때 국어 만점자의 표준점수가 낮아지고, 영어 1등급 비율은 비슷하다는 것. 또 수학은 작년보다 만점자가 크게 줄어든 것으로 예상했다. 이와 함께 전북대학교 최저학력 기준이 전년 대비 낮아져 최저 충족 인원이 늘어날 것으로 분석했다. 이로 인해 도시 지역의 수험생들은 충족률이 높아질 것이며, 자연스

럽게 수시 합격선은 상승한다는 것. 끝으로 지역 대학 정시 합격선은 상위권 학과의 경우 국어 표준점수 하락과 탐구영역 표준점수 상승이 변수로 작용할 것이어서, 이들 점수가 상쇄됨으로써 전년 대비 합격선이 다소 낮아지거나 비슷한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분석했다. 이로 인한 2023학년도 정시모집 전략으로는 수시이월 등의 변수를 고려할 것과, 또 지역 대학 경쟁률이 그리 높지 않을 것으로 판단돼 보다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도교육청이 밝힌 수능 가채점 결과 국어영역은 전년도에 비해 약간 쉽게 출제됐다. 또 수학 영역은 전년도와 비슷했다. 다만, 중간 난도 문항이 늘어나 중위권의 체감 난이도는 상승할 것이라고 했다. 영어영역은 전년도와 비슷하지만, 9월 치러진 모의평가 대비 난도가 높아 등급이 다소 낮아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한국사영역은 1등급 비율이 다소 하락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사회탐구영역 중 동아시사사는 만점을 받아야 1등급일 것으로 예상했다. 마지막으로 과학탐구영역은 전년도 대비 어려운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정은성 기자

화물연대 집단운송 거부 신속 대응체제 돌입

정부 위기경보단계 '심각'으로 격상 따라 전북도, 교통·수송대책반 등 6반으로 구성 긴급 회의 열고 피해상황 공유·대책 논의

전북도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집단운송 거부에 따른 정부의 위기경보단계가 28일을 기해 '경계'에서 '심각' 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전북도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재대본)를 구성해 대응에 나선다. 전북도 재대본은 김관영 도지사를 본부장으로 행정부지사를 차장으로 하는 교통·수송대책반 등 6반으로 구성됐다. 이어, 도는 28일 오후 2시 차장인 조봉업 행정부지사를 주재로 각 반별 소

속 부서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회의를 개최하고, 화물연대 집단운송 거부에 따른 피해상황을 공유하고 앞으로의 대응계획을 논의했다. 특히, 전북도 주력산업인 자동차 분야 철강 및 농업 분야 사료·곡물 운송, 건설현장 시멘트 수송대책, 기업체 피해지원, 유휴화물 이송 등을 중점으로 논의했다. 이외에도 화물연대 집단운송 거부에 따른 도내 산업 경제 피해 최소화를 위해 전 실국 및 출연기관 등 모든 유관기관의 역할을 총동원하는 방침



을 세웠다. 회의를 주재한 조봉업 행정부지사는 부서장들에게 "상황 및 현장관리와 비상근무를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한다"면서 "전북도는 화물연대 집단운송 거부로 인한 도내 산업경제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긴밀하게 협력하면서 전 실국이 총력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경수 기자

2022년 11월 24일부터 완주군

일상에서 1회용품이 더 줄어듭니다!

집단급식소, 식품접객업 	새로 추가되는 품목('22.11.24.~) 사용금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1회용 종이컵 1회용 합성수지(플라스틱) 빨대·젓는 막대 기존 품목 사용금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1회용 합성수지(금속박 등) 1회용 접시·용기(종이, 합성수지·금속박 등) 1회용 나무젓가락, 인공나무젓가락(제조한 것만 제외) 1회용 합성수지 수저·포크·나이프 1회용 비닐식탁보(생분해성수지제품은 제외) 제작·배포 등 사용금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합성수지로 코팅된 1회용 광고선전물
도·소매업(매장면적 33㎡ 초과 업소) 	새로 추가되는 품목('22.11.24.~) 사용금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1회용 봉투 및 쇼핑백(총합소매업 해당) 기존 품목 무상제공금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1회용 봉투 및 쇼핑백 제작·배포 등 사용금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합성수지로 코팅된 1회용 광고선전물
대규모점포 	새로 추가되는 품목('22.11.24.~) 사용금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1회용 우산 비닐 기존 품목 사용금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1회용 봉투 및 쇼핑백 제작·배포 등 사용금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합성수지로 코팅된 1회용 광고선전물
체육시설(운동장, 체육관, 종합체육시설 등) 	새로 추가되는 품목('22.11.24.~) 사용금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합성수지(플라스틱)재질의 1회용 응원용품 기존 품목 무상제공금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1회용 응원용품

더 자세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적용범위 가이드라인을 확인하려면 QR코드를 스캔하세요

환경부 | 전라북도 | 전라북도지속가능발전협의회